

# 삼성·현대차 등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해 인재확보 드라이브

삼성, 상반기 신입공채 절차돌입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사업 채용  
SK그룹, 하이닉스 중심 수시채용  
이노베이션 계열도 내주 채용예고  
현대차 10년만에 기술직 신입공채  
현대위아, 세 자릿수 대규모 채용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인재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전자업계와 항공,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진행한 기술직 채용은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을 겪은 삼성이 위기 돌파를 위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삼성은 이번주 2023년도 상반기 신입 공채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 삼성 직무적성검사, 면접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삼성은 올해 구체적인 채용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년 수준에서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채용은 반도체와 바이오는 물론



현대차 기술직 직원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이 준비하는 미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은 2년 전부터 대형 M&A를 예고해 온 만큼 올해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은 물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하우스나 후 공정 업체를 M&A 후보로 점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 수시채용에 나선다. 현재 필요 인력 수요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에 들어간다. 또 SK이노베이션 계열도 내주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LG그룹도 LG전자가 이달 6일 연세대에서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를 시작하며 상반기 수시 채용에 들어선다. 이 설명회는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이대 등을 순회하며 열린다.

앞서 현대차와 포스코그룹도 올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일부터 기술직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서 구직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이번 채용은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 제한은 없다. 서류 접수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현대위아도 19일까지 연구개발 경력직 채용을 세 자릿수 이상 대규모로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차량 부품, 로봇 및 자율주행(RnA), 방위산업, 안전, 구매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사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포스코그룹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로우 4개사는 22일 오후 3시까지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를 받는다. 모집 분야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보건, 재무, 구매, HR, CR·총무, 마케팅 등이다. 온라인 인적성검사(PAT)와 1차 면접(직무역량평가), 2차 면접(가치적합성평가)을 거쳐 6월 중에 합격자를 선발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모집 분야는 영업(국내·해외영업, 사업개발) 직무, 포스코케미칼은 설비기술·생산기술·경영지원·연구개발(R&D) 직무, 포스코플로우는 물류 직무 인재를 뽑는다. 포스코그룹은 봉사활동 경험자, 의인상 수상자와 공모전·창업 경험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다.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행수요 회복으로 인력 채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일반직 사원 공채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한 지 3년만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 3년4개월만에, 진에어는 2월, 4년7개월만에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해 하반기 신규 채용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객실승무원, 정비, 일반직 등을 공개 모집했다.

수주 훈풍을 맞은 조선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 손잡고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올해 상반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300~400여명의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인재 채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선업계는 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 이외에도 수시 채용을 통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은 이달 1일까지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인상과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기업별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韓 데이터 배운 AI, 우리산업에 가장 적합”

### 네이버 '데뷰2023' 기조연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 첫 공개  
번역 거치지 않고 한국어로 전달  
한국어, 챗GPT보다 6500배 잘해

“하이퍼클로바 X'는 외국 AI와 비교해 한국어에 수천배 능통하고 국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초거대 AI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의 말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23' 기조연설을 통해 '하이퍼클로바 X'를 국내에 첫 소개했다.

해당 자리에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는 번역을 거치지 않고도 요약된 결과를 한국어로 잘 보여준다”며 “영어가 약한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검색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시간이 많이 절약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클로바X를 네이버 지식이나 검색서비스에 접목했을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을 해봐라”고 전했다.

이어 '하이퍼클로바X'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챗봇AI는 96%가 영어로 제공된다. 이에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 챗봇 플랫폼인 챗GPT, 빙을 활용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비해 하이퍼클로바X는 글로벌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행사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AI와 비교해 수천 배 수준으로 한국어 활용에 용이하다. 이에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 국내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파파고 때문이다.

파파고는 2016년 8월 업계 최초로 신경망 기계번역을 적용한 '한국어-영어' 번역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원 언어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동시 통역 기술을 고도화하는데에도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에 파파고를 접목해 AI가 전체 문맥을 파악 한 뒤 단어와 문장의 순서, 의미를 파악한 후 스스로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와 문체로 번역해 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며 “하이퍼클로바X는 이미 한국어 관련 능력 시험에서 경쟁사의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인이 필요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챗봇을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특화시킨 AI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의 데이터를 배운 AI라서 한국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잘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와 산업에 가장 적합한 AI기 때문에 국가 상황을 고려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었다.

하이퍼클로바X는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고, GPT-3의 1750억 개보다 많은 2040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췄다.

하이퍼클로바X의 정식 공개 시점은 오는 7월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삼성, 유럽서 첨단 의료용 영상기술 소개

### 유럽영상의학회 2023 참가

전립선 검사 고통경감 miniER7 등  
초음파·엑스레이 혁신 솔루션 주목

삼성전자가 삼성메디슨과 함께 전세계에 의료용 영상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영상의학회 2023'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은 최근 의료기기 부문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제품의 설계·생산·포장·전시 단계까지 친환경을 고려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이같은 노력의 성과로 초음파와 디지털 엑스레이 등 다양한 영상 기기를 전시했다.

초음파 부문에서는 영상학과용 프리미엄 진단기기인 'RS85 Prestige'와 유럽에 처음 소개하는 'V8'과 'V7'을



관람객들이 삼성의 다양한 영상 진단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내세웠다. 종전보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로 의료진들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밀진단기능도 함께했다.

특히 전립선 초음파 검사 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작은 크기의 프로브 'miniER7'과 지방간 진단을 위해 간의 지방량을 백분율로 보여주는 기술이 인기를 끌었다. /김재용 기자 juk@

## LGU+ '스포키', 8일부터 WBC 생중계

### '2023 WBC' 47개 전경기 서비스

LG유플러스는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을 생중계한다고 5일 밝혔다.

스포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 3.0 플랫폼 사업 전략 일환으로 스포츠 팬들과 디지털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선보인 스포츠 커뮤니티 서비스다. 야

구, 축구, 농구, 골프, 배구, 당구, 볼링, 낚시 등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의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 인기 유튜브와 방송 영상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스포키에 '2023 WBC'를 신설하고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WBC의 47개 전경기를 생중계한다. WBC관에서는 경기 일정과 대진표 정보와 지난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echo@